

사랑하는 창신성결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을 통해 가족들의 온정을 함께 나누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에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말씀이 흥왕하며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신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종복 드림



### 명절에 드리는 예배는 온 집안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차례(茶禮)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명절에 드려지는 제사인 차례를 대신하는 의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과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중에 인도해주심과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초나 향을 피운다거나, 절을 하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의 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부모나 부모들의 신앙을 함께 연결하고 추모하고 가족 각자의 다짐을 함께 나누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뜻 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 설 날 가 정 예 배

2015년 2월 19일(음 1월 1일)



예 수 교  
대한성결교회

창 신 교 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5길 22호 [www.changshin.org](http://www.changshin.org)  
Tel. 765-6850~3 / Fax. 765-6769

# 설날 가정 예배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설날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 시 100:3 ..... 인 도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 송 ..... 623 (통 없음) ..... 다 같 이

기 도 ..... 가족중에서

성 경 ..... 창 12:1-9(구 p.13) ..... 인 도 자  
성경봉독은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찬 송 ..... 288 (통204) ..... 다 같 이  
아이들의 특별찬송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말 씀 .....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합시다 ..... 인 도 자

모든 일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잘 쌓으면 그 하는 일에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으며 효과도 있고 열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 안되어 있으면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고 열매는 고사하고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 한해의 삶에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앙과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이렇듯, 말씀은 신앙생활에 기준이요 핵심가치입니다.

## 2) 신앙의 기초는 자기를 부인(否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조건, 환경, 상황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며 연약과 한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냄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아서 주님으로부터 변함도, 다함도, 쇠함도 없는 것들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 3) 신앙의 기초는 신앙은 항상 미완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점점 머물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씀 많이 알게 되었거나, 영적 체험을 크게 했거나, 큰 사역을 이루는 등등 신앙의 완성을 이룬 듯 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를 이루는 일들이 아직 남았음을 항상 잊지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자기 신앙의 미완성을 인정할 때, 실패하지 않고 항상 신앙의 온전함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앙의 기초들을 튼튼히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이 정해놓으신 궤도를 향하여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온 가족이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나눔 ..... 다 같 이

※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낀점을 가족끼리 함께 나누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나눔이 끝나시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1) 말씀의 기초를 쌓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2) 신앙 성숙을 위해 올해 당신이 마음먹은 일은 무엇인가요?

찬 송 ..... 563(통 411) ..... 다 같 이

축복 기도 ..... 다 같 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주 기도문 ..... 다 같 이